

“양돈농가의 고충을 대변하고 기술전문지로서의 사명을 다하길”



김 광 희
(농림수산부 축산국장)

국내 축산업이 일대 격동기에 휘말리던 1970년대 후반, 그것도 타 가축에 비하여 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양돈업의 공황기에 「월간양돈」이 태어나 양돈경기의 호·불황이 주기적으로 내습하는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발전하여 창간 8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축하해 마지 않으며, 그동안 본지 발간에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해마지 않습니다. 이제 국내 양돈업이 명실공히 전문기술산업으로 크게 발돋움한 것은 양돈업과 양돈관련산업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가 아닐 수 없으며, 여기에는 양돈인 모두의 끈질긴 노력과 함께 정보매체로서의 「월간양돈」지가 선진기술정보의 제공은 물론, 어려운 업계의 현실을 성실하게 해쳐나간 사례들을 때맞춰 생생하게 전해줌으로써 때로는 양돈산업의 견인차로서, 때로는 불만이 발견되는 대화의 광장으로서 그 역할을 훌륭하게 맡아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양돈산업은 그동안 농가부업을 연계한 증산시책 일변도에서 수급조절에 의한 가격안정시책을 집중 추구해 오기도 했으나, 생산조절 없는 가격안정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발전시키고자 1985년도에 축산법의 일부를 개정하고 수급조절은 생산기초단계에서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양돈업의 등록·허가제를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조절시책이나 제도가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층이 얇고 국내에만 국한되어 있는 여건속에서 이를 추진해 나가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돼지 수급안정시책의 강력한 추진과 함께 국제경쟁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개량분야를 더욱 확대·보강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돼지 사양관리체제의 개선과 돼지고기 품질향상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이를 수출로 연계하여 함께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아울러 업계의 염원인 돼지고기 등급제실시도 신중히 검토·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종돈개량에 관심을 두고 국내 종돈생산 전문기관과 대규모 양돈업체를 통하여 종돈 순수계통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외화절감은 물론, 생산성 제고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시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양돈인 스스로가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양돈산업 발전행열에 동참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일체감있게 참여하여 줄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귀지가 양축농가의 고충을 대변하고 모든 기술정보나 정부시책이 오해없이 전달되어 신뢰도를 높이는 등 기술전문지로서의 사명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류 근 흥
(전국양돈경영자클럽회장)

「월간양돈」은 양돈업계의 길잡이

전국 양돈인의 대변지이자 길잡이인 「월간 양돈」지의 창간 8주년을 맞아 우선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월간 양돈」지가 고성(高聲)을 지르며 축산인의 진정한 벗이 되어온 지도 어언 8년. 양돈산업이 미지산업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채 허덕이고 있을 즈음, 우리의 「월간 양돈」지는 전국 양돈인의 권익보호는 물론, 경영합리화를 위한 각종 정보제공, 사양기술의 보급, 업계의 동향과 축산시책의 전달을 위한 횃불의 기치를 높이 들고 양돈업계의 길잡이가 되어 왔음을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민소득 수준이 크게 향상되면서 육류 소비가 계속 신장되었고 또한, 전체 육류 소비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등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온 결과, 오늘날에는 수출전략산업으로의 발판을 구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대한양돈협회를 중심으로 전국 25만 양돈인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해 온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서는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정책과 시장개방 압력이라는 높은 장벽이 가로 놓여 있어, 이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느냐가 우리의 당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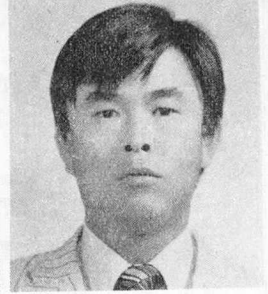
이는 오로지 전국 25만 양돈인 스스로가 공동체 의식하에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경영합리화를 기해 국제경쟁력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이는 종돈개량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면서 기술혁신과 사양관리의 과학화 등을 통해 생산원가를 계속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예견되는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양돈인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생산조절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수요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 양돈시세가 좋다 해서 무계획적으로 양돈을 증식시켜 나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 모두가 자폭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코 「나」만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누구나가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삭빠른 생각이 큰 불행을 자초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다시한번 반성해 보면서, 앞으로 어떠한 국내·외의 여건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을 우리 스스로가 길러 나가야 하겠습니다.

「월간 양돈」지의 창간 8주년에 즈음하여 양돈인의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다 하게 될 「양돈회관」이 순수하게 전국 양돈인들의 열의와 성의로 마련되게 되었음을 지상을 통해 감사드리며, 끝으로 우리 양돈인 조직체의 총 본산인 대한양돈협회와 「월간양돈」지의 무궁한 발전을 거듭 축기하면서 또 축하하는 바입니다. *



우 영 제
(한국양돈연구회 회장)

「월간양돈」 창간 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 양돈업이 부업양돈에서 산업형태로 탈바꿈하기 시작하여 도약을 위한 안간힘을 쓸때, 온갖 어려움을 두 어깨에 메고 양돈전문지로의 기치아래 힘찬 대동을 시작한 지 어언 여덟돌이 지나 통권 95호를 내기까지, 불철주야 끊임없이 정력을 기울이신 대한양돈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양돈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돌이켜 보면 첫 울음을 터뜨린 8년전, 양돈인들끼리의 한마당이 될 양돈 전문지의 필요성을 누구나 절감하면서도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던 때, 대한양돈협회의 용기있는 결단이 오늘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 양돈업 발전에 기여한 유형무형의 공은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편집구성을 보더라도 격변하는 산업사회 속에서 양돈산업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양돈인의 대변자로서 양돈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각종 특집·대담을 통하여 각계 각층의 문제점과 의견을 모아 현실감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넓은 전문지식과 산경험을 토대로 한 집필진의 사양관리, 질병예방, 시설개선, 사료, 영양, 소비 및 유통, 요리에서 현장탐방 등에 이르기까지 전문지로 갖추어야 할 특성을 고루 담고 있으면서도 산만하지 않으며, 양돈인이면 누구나 편하게 대할 수 있는 편집구성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덟돌 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수준 높은 양돈전문지가 있었던가? 외국에서도 구독하겠다는 주문이 쇄도한다고……」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꿈=현실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양돈인의 바람이 정확하게 축산정책에 반영되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수립의 디딤돌 역할.
2. 국제화 경쟁시대에 대비, 원가절감을 위한 구체적이고 차원높은 기술 및 정보제공.
3. 돈육수출의 기반을 조성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제시 및 홍보역할.
4. 국내시장의 고질적 병폐인 유통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제시 및 계도.

양돈산업이 급속도로 변하는 사회에 적응하며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벗어나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모아, 양돈인 모두의 힘을 하나의 응집된 결정체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한 매체로 「월간양돈」이 의무와 책임을 지고 선도적 역할을 다해야겠습니다. 열 여섯돌이 되는 날 원숙한 양돈지를 눈앞에 펼쳐 볼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한번 축하를 드리고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

「월간양돈」은 첨단산업시대의 전문양돈 정보 매체



오 정 남
(본회 제주지부장)

「월간양돈」지의 창간 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오며 아울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회고하여 보면, 우리나라 양돈산업이 급속히 성장·발전하여 국제수준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요인이 있었겠지만, 「월간양돈」이라는 양돈 전문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월간양돈」은 소규모 양돈농가에서부터 대규모 양돈농가에 이르기까지 종돈개량 및 사양관리 개선, 질병예보 및 새로운 기술제공 등 다양한 정보를 전해준은 물론, 자율적 생산조절활동을 적극 전개해 여러 차례의 불황을 극복케 하는 등 양돈전문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87년 3월말 현재 모돈은 56만 6천두로 적정선보다 7만 6천~10만 6천두나 초과사육되고 있어, 금년 하반기부터 88년 상반기까지 큰 불황이 결정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간양돈」은 이러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양돈인들이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홍보함은 물론, 소비확대 및 자율적인 감축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반면, 불황이 온다고 해서 지나치게 감축만 하도록 하면 선진양돈국으로 성장하는데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불황을 타개해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협회는 행정부와 충분히 협의하여 양돈업의 주체인 양돈인의 의사가 반영된 민간주도정책이 이루어지도록 발전의 저해요인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해서 불황을 극소화하고 안정으로 변화시켜 나아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협회는 불황못지 않게 유통구조의 개선, 수급조절 등 제도적인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자조금제도를 입법화하여 전체양돈인의 힘을 한데 모아 개인이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양돈산업도 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 선진양돈국으로 진입하도록 진력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며, 「월간양돈」지는 모든 양돈인들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주는 정보매체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창간 여덟돌을 계기로 「월간양돈」지가 더욱 양돈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전문지로 발전하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